



한국불교 세계화의 지평을 넓히다

호주 시드니서 오세아니아 연락사무소 설치 등 풍성한 성과 거둔 '170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 가져

▼ 호주불교계 인사들과 기념 촬영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시드니총영사관이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가 후원한 '1700년 한국불교의 지혜'가 화려한 점등식을 시작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행사 참여 인원의 범위와 성격을 대폭 넓혀 보다 많은 사람이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근처 현대미술관 광장에 설치된 한국불교 문화 체험장에는 5일간 1만여 명의 현지인들이 컵등 만들기, 단청 그리기, 단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에 참가했고, 전통등 전시회, 닥종이 인형전을 관람했다. 현지인들은 또한 세계문화유산이자 시드니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오페라하우스를 한국의 전통등(燈)으로 형상화한 것에 감탄했다.

포교원장 지원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대행 미산스님은 각각 대중법문과 영어 강연으로 현지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비구니 스님의 출가와 수행을 영화화한 '길 위에서'도 4회 상영돼 한국 불자들을 포함한 현지인의 관심이 쏠렸다.

현대미술관 안에서는 사찰음식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병행됐다.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과 대안스님은 현지인들에게 직접 사찰음식 조리법을 시연하고,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다. 호주한국음식협회를 대상으로 강연 및 시연을 진행했고, 호주 현지여행사와 관광업계, 요리전문가 및 조리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초청 만찬도 마련됐다.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 시드니 분교에서 현지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에 대해 강연했다.

8월 26일 호주불교계 초청 오찬에는 호주불교연합회 회장 수프아모스님, 부회장 이자 2009년 만해 대상 수상자이기도 한 뽀나와로스님, 푸옥탄스님 등 호주불교연합회 및 호주불자연합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고, 28일 현대미술관 6층 하버룸에서 열린 호주 정관계 주류인사 초청 만찬에는 이휘준 시드니총영사, 호주 연방대표를 대표해 다문화장관인 케이트 룬디 상원의원, NSW주 빅터 도미넬로 다문화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호주 행사의 특징은 일회성의 거창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



닌 현지에 한국불교의 교두보를 단단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시드니에서 오랫동안 포교에 전념해온 정범사(호주 기후스님)에 오세아니아주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종단과 호주 한국 사찰 간의 네트워크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사찰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호주불교계는 급성장하고 있다. 30

년 전만 해도 불교 인구가 전혀 없던 호주에 인구 5%에 달하는 불자가 생겨났고, 세 번째로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호주에서의 한국불교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호주의 한국 사찰들이 탄력을 받고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글_ 편집부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 기공식 개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9월 9일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테메케군에서 '체케니 무와송가 농업기술고등학교' 기공식을 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대표단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광스님(조계종 사회부장)과 사무총장 혜일스님, 선원수좌회를 대표해 육문스님과 영운스님, 경기도 광주 우리절 주지 동봉스님 등이 참석했다. 탄자니아에서도 정일 탄자니아주재 한국대사, 김승범 코이카 탄자니아 사무소장, 소피아 음제마 행정장관 등 정관계 인사, 마을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서 미래 농업지도자 양성의 요람이 될 학교 기공식을 축하했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기공식에 참석하여 공연과 함께 춤을 추며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기쁨을 맘껏

표현했다. 그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ITV에서도 현장의 분위기를 취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광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탄자니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면서 공부하게 될 학교를 설립하는 기공식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계기를 통해 대한민국과 탄자니아 국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워질 농업기술학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교육비, 생활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농업을 통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피아 음제마 행정장관은 "학교에서 청



소년들이 배움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라며 감사를 표했다. 정일 탄자니아주재 한국대사도 "넓고 깊은 부처님의 뜻이 이곳 탄자니아에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모든 참석자는 학교 건립 공사가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기원하며 부지 한 편에 기념식수를 하며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기공식에 앞서 아름다운동행은 부밀리 오키니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과 마

을주민의 식수 지원을 위한 우물 통수식을 개최했다. 이 밖에도 농업기술학교 건립 기공식에 참석한 나눔투어단은 9월 13일 케냐 나이로비의 슬럼가에 있는 바키타 학교를 방문하여, 학용품이 절실히 필요한 도시 빈민 아이들을 위해 노트, 필기구 등의 학용품과 간식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www.thenanum.org

후원계좌_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_아름다운동행)

9월 15일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스님)에서
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여
주며 함께 체험하는 '180회 외국인을 위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잔디마당에서 김영란 선생님 지도로 송편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멥쌀 가루에 찹, 자색 고구마, 호박 즙을 섞어 파랑, 노랑 등 아름다운 색의 반죽을 만들고, 깨, 녹두, 땅콩 등 갖가지 준비한 소를 넣어 반달모양의 예쁜 송편을 빚었다. 처음 만들어 보는 송편 빚기라 서툴긴 해도 열심히 즐기며 하는 모습이였다. 반달모양을 만

들려고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재미있는 모양이 빚어지기도 했다. 완성된 송편들을 찜솥에 쪄켜이 솥잎을 깔고 썰서, 준비된 차와 함께 시식하며 모두 즐거워했다.

행사에는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30여 명과 동명대학교 교환학생 25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부산 영여방송국에서 취재차 방문하여, 그동안 외국인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하여 주지스님과 인터뷰하기도 했다. 취재 내용은 9월 19일 오전 Moming wave 시간에 방송되었다.

부산 흥법사 051-508-0345



밤낮없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대던 무더위도 이제 그 끝이 보이는 듯하다. 한국사카디타에서는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4일 6일간, 대만에서 개최된 불교 영어번역 수련회에 참가하였다. 행사명은 ‘샤카디타이완 2013 국제 달마 번역 수련회 및 불교 문화 교류 (Sakyadhita Taiwan 2013 International Dharma Translation Retreat & Buddhist Cultural Exchanges)’인데, 이 수련회는 샤카디타 대만지부의 주최로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등 아시아지역의 샤카디타 회원들이 모여서 불교 영어 번역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전체 일정 가운데 첫 3일 동안은 대만의 비구니 사찰과 연구소, 박물관 등을 돌아보는 체험 행사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3일은 타이베이 법우산(法雨山) 보의원(普宜苑)이라는 비구니 사찰에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 첫날은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의 창립 멤버이며 전(前) 회장을 지냈던 렉셰 쏘모(Lekshe Tsomo) 스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대만 불교에서의 여성’, ‘불교 경전의 번역’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둘째 날은 한국 참가자들이 발표했다. 이번 수련회 전체 4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한국에서는 12명이 참가하였다. 그중 대부분은 한국사카디아의 GEP프로그램을 수료한 젊은 새내기 불자들이었다. GEP(Global Empowerment Program)은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며 불교 영어 번역과 통역 능력을 길러서, 불교를 통해 한국과 세계

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낼 젊은이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사카디타에서 개설한 강좌이다.

오전에는 ‘한국의 템플스테이’, ‘SNS를 통한 젊은 세대의 불교 포교’, ‘한국대학생과 불교동아리’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다. 템플스테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호응도 상당히 좋다고 하자,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도 많은 관심을 표하였다. 단, 젊은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도 템플스테이에 호감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찰에서 머무는데 자율적인 보시가 아니라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낸다는 점은 불교의 근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서 젊은 이들이나 비불교도들도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으며, 해민, 법륜, 정목 같은 스타스님들을 통해서 불교 포교가 비약적으로 활발해졌다는 발표를 하자 대만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무척 흥미로워했다. 하지만 SNS 포교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점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포교와 새로운 포교 방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가자들 모두 깊이 공감하며 활발하게 토론하였다.

계속해서 오후에는 ‘동물실험과 업보의 문제’, ‘경전이나 한국불교 저술의 영역(英譯) 동향’, ‘기존의 한문본에 기초한 국역(國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무상사 국제선
원은 3일간의 안거를 가졌다. 추석은 한
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사실 추석
은 단 하루이지만 앞뒤로 휴일이기 때문
에 그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명절을
맞아 모이게 된다. 그래서인지 무상사 추
석 안거의 참석자들은 주로 외국인이었
고, 특히, 대부분 추석 연휴 때문에 여유
시간이 생긴 영어감사들이었다.

안거 동안 참석자들은 새벽 3시 기상-도량석, 108배, 참선, 예불, 운력, 무상사조실 대봉스님께 공안 점검받기 등의 일정에 맞춰 생활한다. 일반인들에게는 결코 만만찮은 일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 즐거운 명절날 안거를 갖는 것일까?

안거를 끝내며 둥그렇게 둘러앉아 그 동안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었다. 연배가 높으신 한 참석자가 말했다. “추석에 왜 여기 왔느냐고요? 그건 아마도 더 큰 가족, 부처님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본성의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참자아의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요.”

마지막으로 대봉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엔진 탱크 속으로 업의 기름을 부어 넣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옴으로써 우리는 엔진 탱크 속으로 부처님 법의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이 기름으로 우리는 매 생(生) 어



디든 갈 수 있습니다... 참선 수행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나는 무엇인가, 내 본 면목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또 내 본성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저 공중이나, 바위, 물, 풀, 모든 존재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커다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평화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상사를 창건하신 숭산스님은 자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공동 수행은 감자를 씻는 것과 같다. 감자를 큰 그릇에 함께 넣고 막대기로 저으면 흙이 빨리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수행을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때 우리의 업, 한계, 습관 등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법이 자라나면 우리 모두를,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를, 그리고 세계 전체를 도울 수 있다.”

글 일암스님(폴란드)



譯과 산스크리트나 팔리본을 저본으로 하는 새로운 경향 사이의 갈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다음 날에는, 오는 2015년에 세계여성불자대회를 개최할 인도네시아 참가자들의 불교문화 소개와 그들의 번역 현황과 어려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각국의 불교계 현황은 서로 다르지만 불교 영어 번역에서는 서로 유사한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렉세 쏘모스님과 대만 샤카디타의 대표인 크리스티 장, 한국 샤카디타의 대표인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샤카디타의 역사와 13회에 걸친 역대 샤카디타 대회를 돌아보며, 대만과 한국 정부의 창립과 활동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대만지부에서 이처럼 유익하고 좋

은 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하며, 다음에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불교 영어번역 국제워크숍을 마련하여 더욱더 깊은 우정을 쌓기를 기약하였다.

행사가 진행된 보의원의 창건주이신 조인(照隱)법사께서는 우리에게 ‘이곳이 객지가 아니라 모두가 내 집에 온 것으로 여겨라’고 말씀해주시는 자상함과 어떠한 질문에도 거침없이 조리 있게 답해주시는 지혜를 겸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행사진행에서부터 공양 준비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헌신적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신 사찰의 모든 스님 덕분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련회 내내 우리는 모두 내 집처럼 편안하고 서로가 모두 자매와 가족이 된 듯한 진한 유대감을 느꼈다. 다시 한 번 보의원의 모든 스님과 대만 사카디타 여러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올여름, 전 세계에 있는 붓다의 딸들을 위한 한국사카디아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용기 있는 걸음마를 내디딘 한국의 풋풋한 새내기 불자들이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글 오지연(한국사카디타 공동대표)

사진 애니타임투어

월드머시코리아, 베트남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미래를 선물



① 희망장학금 전달식 후 기념사진 ② 푸이엔성(省) 초등학교 학생들 ③ 월드머시코리아 참석자 전체 사진

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스님)가 베트남의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도움의 손을 내밀었다.

8월 27일 호치민시 북서쪽에 위치한 웬자이 고등학교에서는 350명의 초중고대학생에게 희망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매년 9월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학기에 맞춰 지급된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에서 먼 거리를 날아가 참석한 스님들, 서울 여의도포교원 합창단들 외에도 국제구호단체인 아시아프렌즈 관계자 등 많은 사람으로 행사장은 성황을 이뤘고, 베트남 현지의 관심도 높았다. 베트남 정부 총리실의 타이히엔통 행정국장과 파이는성(省) 레흥타이 부교육청장은 물론 장학금 전달식 소식을 듣고 찾아온 주민 등 이날 행사장에는 500여 명이 운집했다. 현지 방송국에서도 취재진이 나와 행사 내용을 보도했다.

웬자이고등학교 당공하우 교장은 “장학금은 단순히 학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남을 위한 정신을 심어주는 의미가 함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사 현진스님은 “베트남이 나은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스님이라면서 “학생 여러분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 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76세에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한국의 할머니 사연을 소개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할머니가 76년의 인생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기뻐한다”면서 “학생들도 학업에 최선을 다해 꿈과 희망을 이뤄 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사 현진스님과 김준식 아시아프렌즈 이사장은 베트남 정부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장학금 전달식 후 월드머시코리아 방문단은 베트남 중부지역인 푸엔성을 방문했다. 푸엔성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많은 양민이 희생된 마을이 있는 곳이다. 월드머시코리아 방문단은 푸엔성 적십자 사회 안내로 양민 희생 마을을 방문하는 등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상처 입은 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논의할 예정이다.

월드머시코리아 후원문의 070-4411-9136

불자 배우 전무송, 케냐 마사이족에게 생명의 물 선사

“지구촌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불자 배우이자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무송(72)씨가 케냐 마사이족에게 생명의 물을 선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무송씨는 9월 5일 오후 1시 고양시 아람누리 극장에서 아프리카 케냐 우물 관리 후원금 100만 원을 지구촌공생회에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존경하는 송월주 큰스님과 활동가들의 보살행이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결과로 회향 되었으면 한다”며 밝게 웃었다.

지구촌공생회 남정덕 사무국장은 “무엇이든 사람의 손길이 자꾸 닿아야 생기를 유

지하듯이 생명의 우물도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무송 선생님의 기부가 목마름으로 가득한 케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식수상황이 열악한 케냐 카지야도 지역에 14기의 핸드펌프 및 모터펌프를 건립·관리하며 급수공덕을 실천하고 있는 지구촌공생회는 대표적인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다. 교육지원사업으로는 엔요르 영화 초등학교를 건립하였으며, 올마피테트 만해 초등학교는 지난 4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건립 중이고, 태공초등학교는 부지 선정 중이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하나로 8천 평 규모의 인키니 농장을 운영 중이다.

불심 깊은 배우로 알려진 전무송씨는 불교영화 <만다라>, <아제 아제 바라아제>, 드라마 <원효대사> 등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3월 불교계 대표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무대 위의 구도자, 전무송. 그의 구도행은 아프리카에 보살의 모습으로 승화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 후원문의 02-3409-0303



불기2557년 제3회

꿈과 희망 가득 한·미 청소년 불교문화 연수

세계 속에 우뚝 설 한국불교 미래 인재들이여!

2013년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꿈을 찾아 함께 떠나봅시다.
미·동·서부 지역 청소년들을 만나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봅시다.
앞으로 한국불교의 큰 동량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 일 정** 2013년 12월 23일(월) ~ 2014년 1월 2일(목) 10박 11일
- 장 소** 미국 동부지역(뉴욕, 워싱턴, 보스턴, 맨하탄, 로디아일랜드 등)
- 대 상** 열심히 수행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 청소년부(주지스님 추천)
- 인 원** 한국 30명, 미동부 5명, 미서부 5명 총 40명
- 지도부** 장범스님(한국/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현진스님(미사부/정원사총무)
- 참 가 비** 한국학생 - 350만원 / 미국학생 - \$1,100(미국내 항공료 별도)
- 준 비 물** 추후 공지
- 신청기간** 2013년 10월 20일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dourim.net 접속 후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메일송부: kbin985@naver.com 팩스송부: 02-733-8985
- 신청금** 100만원
- 문 의** 한국 케이빈 선정화 010-5504-8154 / kbin985@naver.com
미동부 고병희 +1-917-533-8175 / sinnanmom@yahoo.com
미서부 안정열 +1-510-393-3395 / chongwonsa0123@gmail.com

프로그램 - 허버드, 콜롬비아, 예일, 케임브리지, 프린스턴 등 대학 탐방
- Inner Harbor,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다운타운, 엠파이어빌딩 전망대 등 관광
- UN본부, 자유여신상, 알링톤 국립묘지, 링컨기념관 등 방문
- 뉴욕 불광선원, 원각사, 프로비덴스 센터 등 순례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전법단,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조계사, 수덕사, 국제선센터, 화계사, 육천암, 뉴욕 불광선원, 캘리포니아 정원사, LA 태고사, 미동부청소년 한국문화체험 연수단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불국사), 크나큰 원력으로 애틀랜타에 제2의 포교 도량 마련

미국 세인트루이스에는 부처님 나라의 절, 부다나라불국사가 있다. 이제 10년밖에 안되었지만 신심과 열성으로 푹푹 뭉친 스님과 신도들로 널리 알려진 절이다. 그런데 부다나라가 이번에 또 큰일을 해냈다. 애틀랜타에 제2의 부처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다. 해외에서의 한국불교 포교가 얼마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미국도 그 예외가 아니란 걸 안다면 세인트루이스 불국사가 이루어낸 이번 일이 얼마나 희귀하고 놀라운 사건인지 짐작이 나 될까. 9월 10일 한국불교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선각스님과 후원회를 만났다.

“처음부터 애틀랜타에 도량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사찰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자 갈 곳 없던 신도들이 스님 법문을 들겠다고 그 먼 곳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까지 비행기는 1시간 반, 자동차로는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도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께 죄송스러

워 제가 애틀랜타로 가서 일요일법회를 했습니다. 신도 분들의 열성 때문에 힘들어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을 뵙고 싶고 불법을 배우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 막막하고 답답한 신도들의 마음을 선각스님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스님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미국 땅에서 부다나라를 지키고 계신다. 선각스님은 1998년 워싱턴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불교와 참선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모임’을 지도한 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한국불교를 체계적으로 포교하겠다는 원을 세우게 되었다. 스님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후원회가 결성되고 마침내 2002년 5월 11일 세인트루이스에 대한불교조계종 정식 등록 사찰 불국사(미국 등록명: 부다나라 템플 Buddhanara Temple)가 세워졌다.

기반 없이 세워진 사찰이라서 모든 문제를 스님 혼자서 다 해결해야 했다. 궁핍한

재정에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 없는 냉방에서 지내기는 보통이었다. 그러나 교포들에게 고향이 되어주고 유학생들에게는 엄마가 되어주면서 부다나라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 갔다. 스님도 법회와 강연, 참선 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사람에게 부다나라를 알렸다. 인근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등 현지인들에게도 한국불교의 가르침을 전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매달 둘째 주 일요일마다 애틀랜타로 가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 일요일법회를 가졌습니다. 신도들이 오지 않으면 그만두어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더 오시는 거예요. 장소를 빌려 쓰다 보니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더 여법한 도량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싶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부다나라는 지난해 12월 16일 애틀랜타에 총 4만1277여㎡(10.2에이커) 규모의 부지와 건물 1동, 부속건물 3동을 매입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법당은 물론 템플스테이와 수행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10년이라는 그간의 어려움을 돌아보면 결코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그 바탕은 무엇일까. 스님은 무엇보다 스님을 믿고 따라준 신도들이 있었기에 이만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신도 한 분 한 분이 다 보살이라며 고맙다 하신다. 먼 미국 땅에 한국 불교를 뿌리내리려는 스님의 원력 하나를 알아보고 후원회를 결성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랫동안 스님의 든

▶ 선각스님을 후원하고 있는 일심행(우), 극락심, 대원심보살님



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법등장, 극락심, 대승행, 선법장, 일심행 보살님들. 한국에 스님이 계시지도 않고 함께 모일 절도 없었지만 변함없는 신심으로 이국에서 고생하시는 스님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스님과 이 보살님들은 아마도 전생에서 적어도 세 번의 생(生) 정도는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해외포교의 일선에 계신 스님이 국내에 바라는 지원은 어떤 것일지 궁금하다.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문서 포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항상 더 많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교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 작은 크기의 영문 책자를 만들어서 해외의 각 사찰에 배포하면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절에 다니며 불교 신자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미국에 살게 되면 대다수가 교회로 옮겨가는 현실에서 선각스님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일구어낸 부처님 나라 도량들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펼쳐지길 기대한다. 제주 왕벚나무로 화려하게 장엄할 도량에 올려 퍼지는 법음은 그대로 극락정토이리라. 애틀랜타 부다나라는 내년 6월 초 첫째 주 일요일 개원 예정이다.

글 편집부



〈애틀랜타 부다나라 전경〉

한국 비로자나 국제선원, ‘마음 모으기’ 영어담마캠프 회향

제7회 “신나는 영어담마캠프”가 8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동안 팔공산 은해사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바쁜 현대의 아이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사찰에 머물며 영어로 불교도 배우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면서 신심을 단련하여 건강한 세상의 초석이 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전통사찰은 어린이 포교를 하기에 황금의 장소이다. 첫째, 오랜 전통이 고스란히 도량에 녹아 있어 마음이 차분해진다. 둘째, 완벽에 가까운 고즈넉한 자연풍경과 맑은 공기는 돈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가 있다.

이번 캠프에는 주로 서울, 경기지역과 대구, 울산지역 61명의 아이들과 31명의 교사가 참가하였다. 세 명의 외국인 교사와 17명의 한국인 영어교사 그리고 11명의 봉사자가 한 식구가 되었다. 모처럼 부모님의 잔소리와 핸드폰, 학원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방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장난을 친다. 38도를 웃도는 대구지역은 특히나 더웠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내렸다. 다행인 것은 캠프장에는 에어컨이 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캠프에서 아이들은 맑은 공기와 신선한 자연 속에서 내면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하도록 짜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여 모든 것을 판단해야 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Mindfulness(마음 모으기)”이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새벽에 불교 수련 명상을 시작으로 오전은 마음을 모으는 수행에 대한 수업이 영어로 펼쳐졌다. 오후에는 활동과 게임 위주의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되며 저녁에는 별빛 명상 캠프파이어, 영어 일기 등 밤과 연관된 활동으로 마무리했다. 이번에는 특히, 물놀이, 모래 만다라, 풍등, 108염주 만들기, 캠프파이어, 아귀 구출이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에 이어 부쩍 자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커다란 설렘이다. 아이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견고해지며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은해사 앞 개울에서 소리치며 물장구치던 아이들, 도량이 좁은 듯 이리저리 소리치며 뛰어다니던 아이들, 외국인 선생님과 안 되는 몇 마디 영어로 잘도 소통하던 아이들, 큰 소리로 공양게송을 하고 점심을 먹던 아이들, 특하면 다투던 싸움대장 개구쟁이들의 추억 속에 스님, 부처님, 사찰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캠프 때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아주 조심조심 다룬다. 아무리 개구쟁이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야단치기에 앞서 이유를 꼭 물어본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름대로 놀라운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꾸지람은 아이들의 자존감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어린이, 청소년법회 출신 교사들이 3명이 있어서 마음이 아주 뿌듯했다. 초등학교 때 절에 나오던 녀석들이 어느새 의젓한 대학생이 되어 이제는 캠프교사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있다. 이 선배교사들은 스님

에 대한 신뢰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캠프에서 가장 헌신적인 교사로 활약했다.

처음 왔을 때는 별레를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어느덧 하늘소와 친구가 되었다. 작은 미물이라도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이제 쉽사리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산사의 바람, 푸른 소나무 숲, 숲 속 곳곳에 숨겨져 있던 보물찾기 쪽지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큰 재산이 되었다. 훗날 여름이면 생각날 캠프. 법당 지붕의 아름다운 선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다시금 사찰을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분명 살만한 세상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가 마음의 상처 없이 예쁘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을 다시금 서원하며 폭폭 찌는 더위와 싸우면서 캠프가 원만히 회향 되도록 봉사자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봉사자와 스님들, 교사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린다.

캠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내년부터는 캠프를 한 달하면 좋겠다.”는 아이가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캠프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야호!!

글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자우스님

LA 고려사, 가섭존자 및 아난존자 점안식 봉행

LA 고려사주지 묘경스님은 9월 1일 대웅전 석가모니불 좌우보처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조성 불사 및 점안식을 한국에서 오신 덕승총림 방장 설정스님, 현전스님, LA 보광사 종매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삼처전심(三處傳心)을 통해 부처님 법을 계승한 수제자로 의식주 생활과 수행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검소하게 하여 두타제일(頭陀第一)로 불린 가섭존자와 부처님 설법을 기억해서 제1차 경전결집 때 경(經)을 모두 암송한 다문제일

(多聞第一) 아난존자를 봉안했다. 미국에서 점안식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다음 날이 미국의 노동절인데도 많은 대중이 참석했다. 설정스님은 법문을 통해 “시간이 없으니 항상 어디서나 열심히 기도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고려사 회주 현호스님은 “불교를 나무에 비유하면 인도의 근본불교가 뿌리이고, 중국의 선불교가 나무 기둥이며, 한국의 불교가 꽃과 열매이다. 중국 선종사찰에 가보면

석가모니불 좌우에 가섭, 아난존자가 대부분 봉안되어 있다. 근본 불교를 대표하는 가섭, 아난존자를 미국 사찰에 모시게 되어 의의가 크다. 이번 점안식은 근본불교와 선 불교를 조화시키자는 뜻에서 갖게 됐다.”며 감회를 말했다. 점안식에 참여한 불자들은 여법하고 장엄함에 환희심을 가졌다.

고려사에서는 묘경 주지스님과 함께 매일 오후 7시 30분 기도예 목말라 있는 불자들을 위해 천일기도 발원과 함께 108참회와 참선을 하고 있다. 1차 100일 기도는 9월 3일 회향하고, 다시 100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

글_ 고려사 주지 묘경스님



LA 정혜사, 부산 흥법사와 청소년 문화교류 협약식 체결

LA 오렌지카운티 정혜사(주지 석타스님)는 8월 22일 부산에 있는 흥법사와 청소년 자매결연 조인식을 했다. 이 행사를 위해 흥법사주지 심산스님에서는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사찰 신도 23명이 미국을 방문했다.

조인식은 예불, 불제자 서원,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에 이어 정혜사 주지인 석타스님의 환영사로 진행되었다. 이어 심산스님의 인사말을 들은 후, 양 사찰 간의 문화교류 협정서 조인 및 교환이 있었다. 그리고 정혜사에서 준비한 합창단의 축하와 학생부가 마련한 축하댄스 및 점심공양으로 서로 간의 친교를 나누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정혜사 합창단의 축하 “오호라 꽃님이어”와 “오늘은 기쁜 날”을 들은 후, 흥법사 순례단이 “우리도 부처님같이”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를 답가로 불렀을 때였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행사에 참석한 불자들이 감동에 북받쳐 눈시울을 붉혔고, 잔잔한 미소 속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목청껏 부처님의 노래를 합창하는 가슴 벅찬 법회의 순간이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두 사찰은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부와 대학 청년부 불자들이 양쪽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정혜사의 청소년 담당 법사인 향엄스님은 “한국에서 사는 불자 학생들과 이곳 미



국에서 생활하는 한인 불자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생활과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불교 신도로서, 나아가 올바른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의 조인식을 계기로 부산의 흥법사와 미국의 정혜사가 한국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인의 긍지를 갖는 불자 인재양성에 뜻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더 나가 성인 불자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여 불심을 고취하고, 더욱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LA 정혜사 +1-714-393-0206

대만 공승제를 다녀와서

지난 8월 25일 이른 아침, 대만불교연합회에서 주최한 공승제에 참가하기 위해, 대만사타디아 주최로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국제달마번역 수련회 및 불교 문화 교류’ 행사가 열렸던 타이베이 법우산(法雨山) 보의원(普宜苑)를 떠나서, 사찰 스님들이 준비해 주신 대나뭇잎 주먹밥을 들고 사찰에서 준비해준 차량을 이용하여 공승제가 열리는 대만 국립체육관에 이른 아침 도착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면 공승제에 초대받지 못한 승려들이 체육관 입구에 들어서서 탁발하는 모습과 재가자들이 지나가면서 지갑을 열어 시주하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또한, 공승제가 열리는 체육관 입구에서부터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검은색 바지와 흰색셔츠를 입고 일사불란하게 안내하는 모습에서 검소하고 실용적인 대만불교 재가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대만 공승제는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 후 매년 거행되고 있는 큰 행사로, 백중 회향 날에 맞서는 밥과 다섯 가지 과일 등을 스님들에게 공양하면 그 스님들의 위신력을 얻어 현재 부모와 7대의 조상과 6종의 친족이 삼도(三途)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연유하여 하안거 동안 수행하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공승제는 1년에 한 번 전 세계 스님(약 16개국)들을 초청하여 공양하는 대회이며, 행사장의 규모는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고, 1층엔 세계 각국에서 온 승려들이 앉고, 2층은 재가자들이 앉으며, 큰스님들과 귀빈들은 상단에 앉게 된다.

행사는 대만 및 각국 큰스님들의 입장에서 시작되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질서정연하게 스님들께 커다란 둥근 파라솔을 받쳐 드리며 모셔오는 모습은 마치 부처님께서 왕자로 계셨을 때를 짐작

할 만한 규모였는데 파라솔의 행렬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스님들께서 단상에 오르셔서 각각 좌석에 앉으셨을 때 역시 대만스님들의 붉은색과 금색 가사의 화려함에서 위엄이 느껴졌다. 1층 홀에는 큰 둥근 테이블을 중심으로 각국의 스님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입은 가사 장삼의 색상에 따라 어느 나라 스님들인지 가늠할 수 있었고 각국에서 오신 스님들로 장내가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행사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사회자들은 대만 특유의 큰 억양으로 법을 여는 의식, 법문, 공양의식 등을 알리는 안내멘트를 하였다. 특히 특유의 가락조의 불경을 독송하는 대만 재가불자들의 엄숙함과 큰스님들이 의식을 집전하실 때 큰 억양으로 함으로써 장엄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공승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의식이었다. 대만, 한국 등 각국의 재가자들이 입은 화려한 의상 또한 볼거리였으며, 아름다운 자태로 공양을 올리는 엄숙하고 장엄한 모습을 통해 대만불교의 저력을 볼 수 있었고, 각국이 불교로 하나가 되어 경계가 없어진 느낌을 받았다.

공양의식을 다 마친 후 각 테이블에 앉아있는 스님들께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제공되었는데, 이때도 재가봉사자들이 공손히 음식을 드리는 모습에서 스님을 스승으로 높이 받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승제 의식이 끝난 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끝까지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스님들을 극진히 모셨다.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불법승을 섬기고 보살도를 실천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아직도 큰 감동으로 남아있다.

글_ 김연금(몸·마음통합힐링연구소 소장)

사진_ 애니타임투어



한국계 미국 연예인 Margaret Cho, 불교의 자비심으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듬다

미국 - 한국 이름은 조모란, 한국계 미국 코미디언이자 영화배우인 마거릿 조(Margaret Cho)는 2003년 아시안 법률교육재단(AALDEF) 행동정의상과 2004년 민권연맹(ACLU) 인권상 수상, 2006년 8월 미국 독서캠페인 모델을 할 만큼 엔터테이너를 넘어 사회적 활동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음 글은 2012년 12월 14일에 발생한 미국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www.margaretkcho.com/2012/12/14/terrible-day)에 올린 글이다. 불교의 자비 명상수행과 관련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을 당한 모든 부모의 그 비통함을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같이 느껴보려 애써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이란 건 다만 알맹이가 빠진 텅 빈 상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두에게 내 모든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존중하며 내 침묵을 보냅니다. 내 심장의 한 조각을 떼어내어 여러분의 심장에 보태어 그 심장들이 함께 뛰어서 다만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혼자 가 아픔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을 들이마시고, 여러분이 두 눈을 감고 쉴 수 있도록 내 안의 평화를 내보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을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랑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내 모든 사랑을 보냅니다. 부디 받아주시길. 제발.”



아시아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많은 장애를 극복하며 마침내 할리우드에서 동양 출신 연예인의 아이콘이 된 그녀의 삶을 ‘삼발라 쉰Shambhala Sun’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다. 인터뷰 내내 그녀는 고통, 연민, 동정, 사랑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녀는 현재 유선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송 중인 ‘체인징 디바(원제: Drop Dead Diva)’에 테리로 출연 중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나는 평화, 혹은 평정한 상태, 또한 연민과 친절을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이고 진짜이다. 웃음은 아름다움의 표현인데 왜냐면 웃음은 가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진실한 것이 웃음을 자아낸다. 가장 커다란 웃음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깊은 진실에서 나온다.

어떻게 코미디언이 되었나?

14살 때 코미디를 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한 분이 내 안의 자질을 발견하고 나를 격려해 주셨고, 코미디클럽에서 공연하도록 마련해 주셨다. 그 후 그냥 계속했을 뿐

이다. 나는 10대라는 그 어정쩡한 시절이 싫었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학교도 재미없었고 또래 친구들과 사귀는 것도 재미없었다. 코미디언이 됨으로써 내가 싫었던 것들로부터 탈출한 셈이다. 나는 창의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당신의 코미디는 매우 대담하다.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나는 사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경험은 감추는 것보다 나눌 때 더 도움이 된다. 사생활이란 말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말인데 사실 그 말은 아무것도 보호해줄 수 없다. 우리 모두 같은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새롭게 드러나는 것은 없다.

당신은 많은 고통을 예술 활동 속으로 끌어

들인다. 위대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활용한다면 그건 고통을 표현하는 위대한 방식일 것이다. 누구도 고통을 면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은 인간적인 경험이다. 고통은 항상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쁨도 있다. 고통을 피하려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은 살아있음의 한 부분이다. 무엇인가를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코미디뿐만 아니라 영화도 하는데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공감함으로서, 그 사람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

마거릿 조 홈페이지 www.margaretkcho.com

인터뷰_ 안드레아 밀러, Shambhala Sun [2013. 9]

미 교도소 내 식단 논란: 생선은 채식에 포함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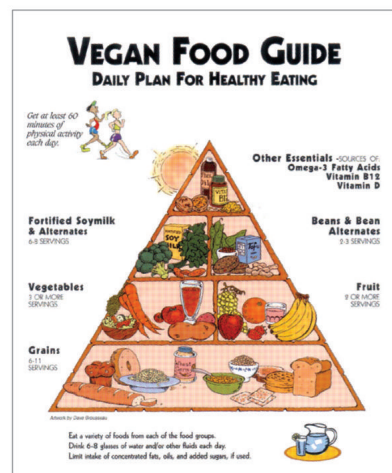
▼ PETA가 권장하는 채식 식단 그림

코네티컷, 미국 - 2004년부터 코네티컷의 코리건-래드고우스키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인 하워드 코스비는 자신이 불교 수행을 하고 있으니 채식 식단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도소 당국은 생선이 고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1주일에 세 번씩 생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물권리 보호 단체인 PETA(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위한 사람들,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에 도움을 호소했다.

19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35살의 코스비는 PETA에 보낸 편지에서 교도소 당국에 식단 변경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생선을 고기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스비의 식단은 채식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그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코스비의 입장을 대변하는 PETA의 변호사는 생선은 ‘해엄치는 채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생선은 당연히 고기입니다. 생선은 생각하고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중앙 신경시스템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동물처럼 생각도 하고 신경도 가지고 있는데 생선을 어떻게 단지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코스비 씨는 생선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PETA는 2000년에 통과된 연방법 ‘종교부지의 사용과 종교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코스비의 식단에서 생선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교도소장에게 보냈다. 이 법은 수감자의 종교행위에 대



해 교도소가 불편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모든 불교 신자들이 다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코스비는 불교의 비폭력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방식을 존중하여 채식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변호사는 확신한다.

교도소 당국은 수감자의 식단은 ‘자격증을 갖춘 영양사에 의해 모든 영양학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되며 종교적 교리에 의해 금지된 음식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PETA는 미국 전역에서 교도소 식단과 관련해 발생한 이와 유사한 분쟁들에서 수감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따라서 코스비의 요구도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리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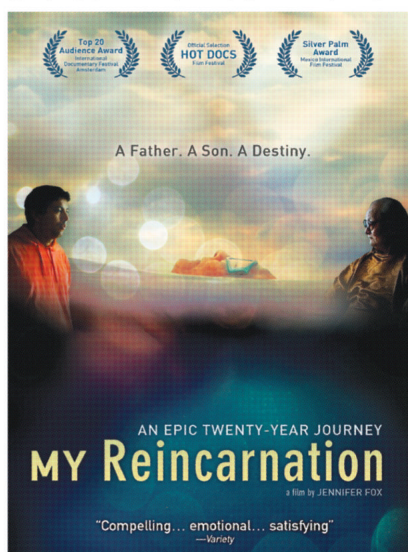
“이 문제는 단순합니다. 연방법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THE ASSOCIATED PRESS [2013. 9. 13]

불교영화 “나의 환생” 에미상 후보에 올라

미국 -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현대 사회의 충돌을 그린 불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

제니퍼 폭스 감독의 “나의 환생(My Reincarnation)”은 저명한 티베트인 선사 남카이 노르부의 아들 카예쨌 예쉬 남카이의 삶의 여정을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화면에 담은 작품이다. 에미상의 ‘뛰어난 교육 프로그램-장편’ 부분 후보에 오른 이 작품은 이미 라이프치히와 암스테르담의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공식적으로 초대되기도 했다.

남카이 노르부는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뒤 이탈리아로 탈출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예쉬 남카이가 태어나자 그는 아들이 자신의 삼촌이었던 라마의 환생이라 믿는다. 아들에게 티베트 라마로서 합당한 전통적인 영적 훈련과 티베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려는 아버지, 현대 문명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사회적 성공이라는 평범한 삶을 꾸려 나가고 싶은 아들, 이들의 고조되는 긴장을 영화는 계속 추적한다. 마침내 예쉬는 전생에서 겪었던 자기 죽음을 기억하게 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 할 것을 부탁한다. 영화는 2012년 6월에 PBS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POV” 시리즈의 하나로 방영되었다. 에미상의 우승자는 10월 1일 발표된다.

Buddhadharma [2013. 9. 17]

멸종 위기의 눈표범 보호에 앞장서는 사찰과 스님들

칭하이, 중국 - 멸종 위기에 처한 눈표범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보다 티베트 고원 내 수백 개 불교사찰 지역에서 더 많이 보호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주 학술지 보존생물학(Conservation Biology)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눈표범의 생활권 안에 있는 사찰의 스님들은 지역을 순찰하면서 이 희귀한 표범들을 밀렵꾼들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 존경, 그리고 연민이 바로 불교의 기본 특성입니다. 이 보고서는 과학의 비전과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혜가 결합되어 자연 유산을 보호하는 좋은 예입니다.”라고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이자 멸종위기의 눈표범 보호 단체인 ‘판테라(Panthera)’의 조지 웰러는 말한다.

◇멸종위기의 눈표범

아시아의 높은 산악지대에는 약 3,500에서 7,000마리 사이의 눈표범들이 사는데, 이중 약 60%가 중국에 서식한다. 표범의 두껍고 따뜻한 털은 높은 지대의 겨울 추위를 막아주며 넓적한 발바닥 덕분에 아무 기척도 내지 않고 소리 없이 우아하게 눈 위를 걸을 수 있다. 밀렵꾼들은 따뜻한 모피와 비싼 한약재로 쓰이는 장기를 얻기 위해 표범을 포획한다. 농부들도 양이나 염소 등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표범들을 사냥한다. 그 결과 눈표범의 수는 지난 20년간

20%가 감소했다.

◇보호 네트워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웰러와 동료들은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칭하이성(省) 산지 양우안 지대에서 눈표범들의 분포도를 조사했다. 2009년 이후 몇몇 보호단체들은 그 지역의 네 개 사찰과 유대관계를 맺고 사람과 표범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표범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스님들을 교육했다. 연구팀은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스님이 눈표범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 지역을 적극적으로 순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님들은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아름다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교육하고 있었다. 144가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의 비폭력 정신을 지켜 야생동물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따로 지정된 자연보호 구역에서보다 사찰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수의 표범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연구서는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찰과 공조하는 눈표범 보호프로그램이 현저히 효율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눈표범의 자연적 서식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80%가 불교를 믿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이 더 넓은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기대했다. **티아 고스, Live Science [2013. 9. 6]**



인도 여성화가, 힌두 회화기법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다

비하르, 인도 - 한 젊은 여성화가가 힌두 회화기법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써 예술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오랜 전통과 카스트라는 신분제도에 도전하고 있다.

말비카 라즈는 인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비하르주(州)의 미틸라 마을 여성들에게 전승되어 내려온 전통적인 마두바니 회화기법을 배웠다. 마두바니 회화는 단순한 집안 소품과 천연 색소를 사용해서 힌두교의 서사적 이야기, 자연적 구성물, 힌두의 상징들을 2차원적인 형상과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그리는 것이다.

그 후 라즈는 열렬한 불교도였던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받아 부처님의 삶을 마두바니 화풍으로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였는데, 뭄바이의 화랑에서는 호평을 받았음에도 비하르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로부터 혹평을 들었다. 한 번은 그녀의 전시회에 오렌지색 가사를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와 다른 작품들은 보지 않은 채 어떻게 힌두의 신과 여신들로 부처를 표현할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그녀는 개의치 않는다.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부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야기를 마두바니로 그립니다. 저희 남편은 아버지에게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와 설법하신 내용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 후에도 저는 계속 부처님에 대한 글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녀가 ‘달리트(Dalit)’이기 때문에 그녀의 독특한 예술 활동은 더 제약을 받는다. ‘달리트’는 전통 힌두 사회 구조에 의하면 ‘불가촉천민’을 말한다. 자신도 불가촉천민으로 차별적인 카스트제도에 대항해 불교로 전환한 사회개혁가 암베드카르 박사의 영향으로 수십만 명의 달리트들이 지난 50년 동안 자신의 카스트 계급을 거부하고 불교로 개종했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와 같은 저항 정신 속에서 성장한 라즈는 자신의 신념에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만 예술작품이 힘을 얻게 된다고 믿는다. 그녀는 현재 젊은 달리트 여성들에게 마두바니 회화를 가르치고 있다.

“저는 여성운동주의자이고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달리트 여성들은 이런 운동에서 뒤쳐져있고 모든 분야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 가지의 불평등과 억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첫째는 달리트라는 것, 둘째는 여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했고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말비카 라즈의 법명은 ‘수자타’이다. 수자타는 석가모니부처님이 고행을 마쳤을 때 그에게 죽을 바쳤던 여인으로 석가모니는 이 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마지막 선정에 들어 마침내 부처로서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말비카 라즈의 홈페이지

www.buddhapaintings.org

콘초 노르부, Shambhala SunSpace [2013. 9. 6]



베를린서 심포지엄 통해 명상과 과학이 만날 예정

베를린, 독일 - 달라이 라마와 같은 불교적 명상가와 세계적인 과학자와의 만남을 통해 명상과 과학의 접합을 추구하며 명성을 얻은 ‘마음과 생활 연구소(mind and Life Institute)’가 유럽에 지부를 결성하고 10월 10일부터 13까지 베를린에서 유럽 최초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명상적 측면에서 본 개인과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심포지엄에는 신경과학, 임상과학, 교육, 철학, 명상과학, 경제학 전문가들과 수행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2000년 이후 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스님이면서 작가인 마티유 리카르(프랑스 태생으로 촉망받던 과학도였지만 서른세 살에 티베트로 건너가 승려가 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가장 최신의 명상과학을 배우고 경험하며 명상수련 연구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자주 불교를 마음의 과학이라고 말씀하신다.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비극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마음과 생활 연구소’의 합동 연구를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순간들마다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개발하고 이런 작업이 계속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티유 리카르 외에도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과 명상수행자들이 연사로 참여하는데 몇몇 참석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데니스 J. 스노우어: 키엘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아더 자종크: 암허스트대학 물리학 석좌교수, 엘레나 안토노바: Ph.D., 런던 킹스컬리지 심리학연구소 강사, 윌터 오시카: Ph.D., 스톡홀름대학 스트레스연구소 연구원, 프레드 폰 올맨: 불교 명상 스승 등.

Buddhadharma [2013. 8. 18]

▶ 6~7면 번역은 현재 국제포교사회에서 활동하고있는 하양자님이 맡아주었습니다.

제5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열려

불교계 최고의 이주민 행사로 자리 잡아

가을 기운이 다가오는 청명한 9월 15일(일), '2013년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잠실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어울림 한마당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에는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8개국에서 800여 명의 이주민과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와 국제전법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공동 주관으로 함께 뜻을 모았다.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은 명실공히 불교계 최고의 이주민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 행사는 여러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경기와 놀이, 장기자랑 등으로 함께 어울리며,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는 축제가 되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포교원장 지원스님과 송묵스님, 노휴스님이 참석하였고, 국

제전법단에서 단장 수암스님을 비롯하여 보련스님, 도제스님, 수안스님, 비로자나국 제선원 자우스님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중앙신도회에서는 이기흥 회장, 정한신 사무총장이 성원하고, 외빈으로 카만 싱 라마 네팔대사님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축사를 해주었다.

이번 행사는 축구, 줄다리기, 400미터 계주와 명랑운동회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국의 음식 장터, 문화공연, 참가자들의 장기자랑, 락밴드 J-morning의 공연 등으로 모든 참가자는 더욱 흥겨운 분위기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몽골이 여러 국가를 제치고 전체 1등의 영광을 안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주민이 이 행사를 기억하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내년에는 한국의 여러 사람과 단체들이 함께하여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되길 바래본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2013년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한 소감문

2013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국제포교사를 비롯한 봉사자들이 삼삼오오 행사장으로 도착했다. 오전 10시에 본 행사의 개회식을 선언하고 나라별로 국제포교사회 회원들이 담당 역할을 수행하며 주최 측과 이주민들의 소통과 제반 지원 봉사활동을 하였다. 10시 30분부터 축구경기, 400미터 계주, 줄다리기 등의 열띤 시합이 펼쳐지면서 행사장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점심은 본국의 음식뿐만 아니라 네팔, 베트남, 태국, 한국이 음식 장터를 운영하여 참석자들이 자유로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게 하였다. 필자는 네팔을 지원하고 있어서 네팔음식을 들고 함께 일하는 도반들과 다른 나라의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번 행사의 꽃은 문화공연이었다. 나라별로 전통의상을 준비하여 자기 민족의 고유한 문화의 향기를 전하고자 노래나 춤을 곁들여 선보였다. 타국인 한국에서 고국의 문화공연을 하는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다양한 문화의 향연을 같이 만끽하는 것이다. 향수를 달래기도 하리라. 어떤 이는 한국가수 노래까지도 한다. 음악은 역시 가장 소통하기 쉬운 문화수단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락밴드 J-morning을 초청하여 신나는 춤과 노래로 이주민들이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대의 가수들과 17세의 기타리스트가 온몸으로 뿜어내는 젊은 열정은 참가자들이 흥에 겨워 몸을 흔들지 않



을 수가 없었다.

따가운 오후 햇살이 점점 익어갈 무렵 전 경기의 종합 성적 결과 시상 및 장기자랑 시상식을 마치고 이번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수상과 비수상의 간격은 없었다. 함께 만나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느꼈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가자에게 나라별로 푸짐한 선물을 주고 우리 봉사자들도 기념수건과 작은 선물을 안고 행사장을 나선다. 이 행사를 위해 80여 명이 자원하여 봉사한 국제포교사회원들의 역할로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 들었다.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제공한다. 포교원장 지원스님이 오전 축사에서 일일이 참가국의 인사말로 각국 이주민들에게 인사한 의미는 바로 모두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 자리에서 나누자는 메시지였다고 본다.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해마다 더 나은 행사로, 보람 있는 자리로 이어질 것을 기원한다. 글_국제포교사 14기 무법 김영일

'한국YBA 총재배 전국 네팔인 축구대회 2013'

지난 9월 20일(금) "한국YBA 총재배 전국 네팔인 축구대회 2013"이 동두천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올해로 3회째 치러지는 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포항, 목포 등 전국에서 16개 아마추어 네팔 축구팀이 모였다. 하루 동안 토너먼트로 결승까지 치러야 했기에 아침 7시에 첫 경기를 알리는 호루라기가 힘차게 울렸다.

6시간 동안 여덟 경기를 치르고 8강 진출팀이 가려진 가운데, 낮 1시에 내빈을 모시고 축하행사를 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대회장 우르겐 스님을 비롯하여 박형덕 동두천시 의장, 김영하 능인선원 금강회 수석 부회장, 유기흥 한국 내셔널리그 상설위원장, 한국을 방문 중인 네팔의 마라톤 영웅 버이 쿤타, 남달 린포체 재단 네팔 부회장 푸르나 싱 라마, 용수사 네팔

인 신도회장 다와 칼상 타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선수단 포함 총 800여 명의 네팔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성황을 이룬 이날 대회 우승은 치열한 접전 끝에 경기도 마석에서 참석한 마석FC 선수단이 차지했다. 작년 우승팀 동대문의 마냥FC는 1대 0으로 아깝게 지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심판진이 뽑은 MVP는 골문을 단단하게 틀어막은 마석FC의 수문장 프로카스 비크럼 골키퍼가 차지했다.

즐겁게 웃고 떠들며 추석 명절을 만끽할 수 있었던 이번 대회는 많은 분의 후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다.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YBA 02-6414-1034

▼ 상금과 우승컵을 받고 환호하는 우승팀 마석FC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의 '한가위 休 템플스테이'

지난 추석 명절 동안 육지장사에서는 김포 지역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의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었다.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1박2일의 일정으로 참석자들은 산사에 머물면서 예불 참식, 108배 절 수행, 사찰 음식 공양 및 스님과의 차담 시간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생활에서 여유를 찾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산사를 찾아 여유를 가지고 친구들과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희망을 찾아가는 여행이 있어 힘든 삶도 버틸 기회가 되고 있다. 앞으로 전국 사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해 본다. 김포마하이주민센터 031-985-0654

